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이론 진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

마 승 혜
(한국외대)

1. 연구목적 및 배경

폴리시스템 하에서 문학이란 단지 독립적인 별개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주변 요소 및 질서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폴리시스템에서 핵심은 여러 시스템들(정치적·경제적·문화적 시스템 등)이 서로 경쟁하며 중심적 위치(central position)를 차지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진화해간다는 것이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번역문학이라는 시스템은 문학시스템 내에서 일반적으로 주변적 위치(peripheral position)를 차지하는데, 특정 상황¹⁾에서는 번역문학이 중심적 위치로 이동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번역문학 시스템의 상대적 위치는 문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Even-Zohar 1990b: 80)고 한다. 그런데 특정 시스템의 상대적 위

1) 특정 상황에 대한 상세 설명은 '2.1 폴리시스템 이론의 기본 가설 및 학문적 기반' 참고

치 결정과 관련된 폴리시스템 이론의 기본 가설(basic tenets)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폴리시스템 이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Hermans 1996; Chang 2011)과 여러 시스템 중 특정 시스템, 예를 들어 번역문학이라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중심적 위치에 있는지, 주변적 위치에 있는지를 결정할 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문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people's perception)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Hermans 1999; Wang 2008)는 비판이다. 즉, 특정 시스템의 위치를 결정할 때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폴리시스템 이론에서 객관적 기준에 대한 기술이 충분치 않다고 이 이론의 가치를 일축하기에는 폴리시스템 이론이 문학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폴리시스템 이론은 문학 연구를 역사의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함께 통합하여 볼 수 있게 해준다”(Gentzler 2001: 11)는 설명처럼 이는 주변 시스템과 더불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깊은 문학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폴리시스템 이론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사례를 추출하여 이론 적용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번역문학의 위치는 주관적 인식을 통해 결정된다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폴리시스템 이론에 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문학 및 번역문학 연구에 있어서 이 이론의 가치 및 활용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폴리시스템의 또 다른 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헤르만스(Hermans 1996, 1999), 겐츨러(Gentzler 2001)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폴리시스템 이론의 기본 가설(basic tenets)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다(Chang 2011: 331). 비판에 대한 상세 설명은 ‘2.2 폴리시스템 이론에 대한 비판’ 참고.

2. 폴리시스템 이론을 둘러싼 논의

2.1 폴리시스템 이론의 기본 가설 및 학문적 기반

기본적으로 폴리시스템 이론에서는 번역문학 위치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번역문학이 단지 개별적인 외국 텍스트들의 모음이 아니라 목표 문화권내에서 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번역을 위한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선택은 목표 문화권(target culture)의 상황과 관계가 있고,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번역 규범의 선택은 목표 문화권의 다른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Even-Zohar 1990a: 45-46).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번역문학은 문학 폴리시스템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번역문학이 중심적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a) 폴리시스템이 아직 구체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문화권에서 문학이 ‘신생(young)’ 문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 (b) 특정 문학이 ‘주변적’ 또는 ‘열등한(weak)’ 위치에 있거나 그 둘 모두에 해당할 때, (c) 특정 문학이 전환점, 위기 또는 문학적 진공상태(vacuums)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번역문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Even-Zohar 1990a: 47).

이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 가설은 번역문학의 위치와 번역 행위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번역문학이 중심적 위치로 이동하여 문학 폴리시스템의 중심을 구성하게 되면 번역가는 기존의 자국 시스템을 따르고 유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레퍼토리(repertoires)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번역은 충분성(adequacy)라는 측면에서 좀 더 원천 텍스트(source text)에 근접한(충분한) 번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번역문학이 주변적 위치에 있을 때에는 번역가는 주로 외국 텍스트를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에 맞추는(즉, 목표 문화권에 수용성이 높은) 번역 방식을 택하게 된다(Even-Zohar 1990a: 50-51).

이 폴리시스템적 접근방식은 비교문학연구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식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전에는 원본과 번역을 비교하며 번역 과정에서 무엇이 ‘누락(lost)’ 되었는지 또는 ‘불충(betrayed)’한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이 이론의 등장으로 한 문학 시스템에서 다른 문학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Bassnett 2002: 7-8).

그리고 폴리시스템 이론은 “번역학 내에서 번역에 관한 체계적 연구 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other disciplines)의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어주기도 한다”(Lambert 1995: 110). 즉, 번역학에서 새로운 학제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시해준 것이다.

2.2 폴리시스템 이론에 대한 비판

폴리시스템 이론이 번역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고 주관적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폴리시스템 이론에서 특정 문학이 중심적 또는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번역문학은 문학의 폴리시스템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주장에 관해 바스넷(Bassnett 1998)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일반적으로 번역문학은 주변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소 명확하지가 않다(crude). 특정 문학을 ‘주변적’ 또는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정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평가적 용어 사용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Bassnett 1998: 127).

바스넷의 비판에 덧붙여 헤르만스(Hermans 1999)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폴리시스템 이론의 주장이 시작되는 기본적 관점과 관련하여 명확성(clarity)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심히 우려스럽다(troubling). 특정 문학을 신생(young), 열등(weak) 또는 위기(crisis)에 놓여있다든지 심지어는 ‘진공(vacuum)’ 상태에 있다는 가치 판단을 하는 데에는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Hermans 1999: 109).

즉, 특정 문학이 주변적 또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열등한 또는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위치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이지가 않고, 이는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영역으로 치부되어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폴리시스템적 접근방식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화된 측면도 있고 가치판단(value judgments)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논쟁적(polemic)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Lambert 1995: 105).

따라서 장(Chang 2011)은 “주관성 또는 추측이 때로는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신념을 갖고 판단을 내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Chang 2011: 315)는 의지를 갖고 폴리시스템 이론을 좀 더 구체화하여, 어떠한 기준 및 시스템이 작용하여 번역의 위치, 번역을 위한 원천 텍스트 선정, 구체적인 번역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상세화 하였다.

2.3 폴리시스템 이론에 대한 보완 및 구체화

기존의 폴리시스템 이론은 관련 규범을 상세하게 분류하거나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헤르만스는 폴리시스템 이론에 제시되는 규범의 개념을 좀 더 상세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내포된 사회적·이데올로기적 요소 및 번역의 영향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적·방법적 틀”(Hermans 1996: 41)을 요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Chang 2011)은 폴리시스템 이론을 좀 더 보완(구체화)³⁾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2011: 339).

특히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폴리시스템 혹은 하부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

1. 정치적(political) 폴리시스템, 이는 권력을 지닌 그룹(power)과 권력 밖의 그룹(marginalized groups)으로 구성됨
2. 이데올로기적(ideological) 폴리시스템, 이는 한 문화에서 각기 다른 그룹이 지지하는 경쟁적 또는 상충적 이데올로기들로 구성됨
3. 경제적(economic) 폴리시스템, 이는 번역 활동이 특정 “경제적 원칙”에

3) 보완된 폴리시스템 이론(the augmented version of polysystem theory)(Chang 2011: 339)

따르도록 함

4. 언어적(linguistic) 폴리시스템, 이는 번역이 다양한 언어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함

5. 문학적(literary) 폴리시스템, 이는 “인정된(recognized)”(투리(Toury), 1995: 171) 문학적 모델을 번역에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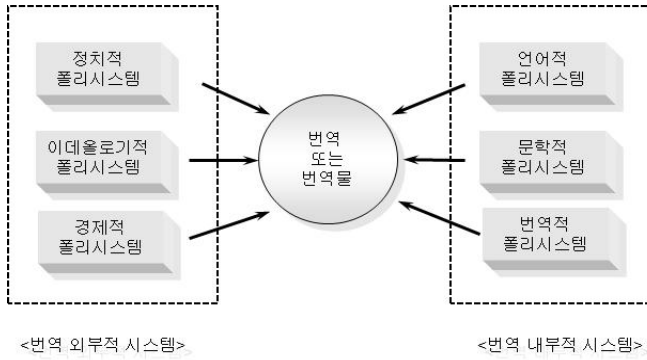
6. 번역적(translational) 폴리시스템, 이는 번역의 규범이 번역 교육 시 부분적으로(partially)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데, 번역 연습 시에는 실제적 목적을 갖고 (번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마치 문화적 진공상태(cultural vacuum)에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번역하도록 지시 받음⁴⁾.

이처럼 다양한 규범과 시스템이 형성하는 틀 내에서 번역가는 번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이 틀을 바탕으로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사회·문화·이념적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6가지 시스템 중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경제적 폴리시스템을 묶어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외부적 시스템들은 어떤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할 것인지, **작품 선정**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언어적·문학적·번역적 폴리시스템은 구체적인 번역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내부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고, 이 내부적 시스템들은 선택한 문학 작품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번역 행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내부적·외부적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외부적 시스템은 작품 선정에만, 내부적 시스템은 번역 행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시스템들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작품 선정 및 번역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만, 본고에서는 작품 선정에서 번역 행위 변화까지 과정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범주화 하여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4) 이 번역적 폴리시스템에 기인하는 규범들은 다른 종류의 규범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음(Chang 2001: 321). 상세 설명은 ‘2.3.6 번역적 폴리시스템 참고’.

그림 1 보완된(augmented) 폴리시스템 이론(Chang 2011: 339)⁵⁾



2.3.1 정치적 폴리시스템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소개된 일본 번역문학을 살펴보면, 번역할 작품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폴리시스템이 크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전후 미국의 번역가와 편집자들은 전쟁 중 더욱 첨예해진 일본과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쟁 이전의 일본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 된 일본 소설들 가운데 일본은 ‘호전적이고도 즉각적인 위협 세력’이라는 전쟁 전 이미지와는 정 반대로 이국적이고 미적이며, 본질적으로 멀리 떨어진(foreign) 나라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Fowler 1992: 3; Venuti 1998: 128 재인용).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적 폴리시스템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 시기 미국에서 일본 문학의 정전으로 선택되어 번역된 작품들은 대부분 과거의 향수를 담고 있는 서정적인 작품들이었고, 대표적인 작품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다. “번역을 위해 선정된 일본 소설들 속에 미학적으로 표현된(aestheticized) 영역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 ‘불구대천의 원수(mortal enemy)’의 위치에서 냉전 시대에 ‘꼭 필요한 동맹국(indispensable ally)’으로 변형되어가고 있던 시기에 보다 적합한 일본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었다”(Fowler 1992: 6). 즉, 미국 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여러 일본 소설들 중에서도 일본의 전통 및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의 위치가

5) 이 그림에서 시스템의 외부적·내부적 구분은 필자의 것임.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겨오고 번역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폴리시스템이 작용한 경우는 한국의 번역 문학 양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과 휴전, 서울 수복과 그 이후 제1공화국의 철저한 반공 정책의 영향으로 지구촌의 반쪽 즉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과 중공의 현대문학은 물론이고 제3세계 문학의 번역도 전무했다”(전현주 2004: 172).

〈표 1〉 1950-59 번역된 소설의 수(전현주 2004: 172)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계
1950-1959	128	192	258	81	30	7	89	785

이처럼 정치적 폴리시스템이 문학의 위치와 번역될 작품 선정에 영향을 끼치고 특정 시대의 번역문학을 구성하게 된다.

2.3.2 이데올로기적 폴리시스템

이데올로기적 폴리시스템은 다수의 그룹이 표방하는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특정 작품들의 위치가 중심부로 변경되고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작품들이 더 많이 번역된다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폴리시스템이 번역할 작품 선정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움직임은 한국사회에 여성주의가 유입되어 그 운동이 활발해진 시기와 그에 따른 번역 출판 현황이다.

한국 사회에 지배적이던 가부장제에 혁신적 변화가 등장한 시기는 1980-90년대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 운동은 사회 전반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운동으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 여성운동 진영에서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계급문제·민족문제·분단문제 등으로 비교적 단일하게 파악했다면, 90년대를 지나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가시화 되었다”(박선영 2004: 211). 또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관련 기관, 학회, 단체들이 1980-90년대에 거의 모두 설립⁶⁾되었고, 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양시내 2006: 34).

이처럼 여성주의 이데올로기가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자 여성주의 관련 문학작품들 또한 각광받기 시작하고, 번역문학 시스템 내에서 그 위치가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대표적인 여성주의 작가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를 꼽을 수 있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이 처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된 1959년 이래로 가장 많은 번역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이다.

<표 2> 시대별 버지니아 울프 작품의 도착 텍스트 출판 횟수와 성별에 따른 텍스트 생산자의 수(양시내 2006: 38)

출판연대	초판 텍스트 수	텍스트 생산자 여성/남성의 수
1950	1	0/1
1960	2	0/2
1970	5	1/4
1980	5	2/3
1990	33	23/12
2000-2006	4	2/2

<표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주의 이데올로기가 각광받기 시작하자 여성주의 작가와 작품들의 위치가 중심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작품들이 더욱 활발하게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폴리시스템이 작용하여 번역작품 선정에 영향을 끼친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2.3.3 경제적 폴리시스템

경제적 폴리시스템은 번역 작품 선정 및 행위가 특정 경제원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 요소 중 하나는 번역문학의 독자 수용성이다. 즉, 번역할 작품을 선정할 때 출판사 및 번역가는 경제적 폴리시스

6) 1985년 ‘한국여성학회’ 설립 및 『한국여성학』 창간,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1988년 『여성신문』 창간, 1989년 ‘한국여성 연구소’ 설립, 1990년 『여성과 사회』 창간, 199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문화예술기회’ 창립, 1994년 ‘한국여성교양학회’ 설립 및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창간, 1998년 ‘한국여성문학학회’ 설립 및 『여성문학연구』 창간 등.

템에 따라 독자에게 잘 수용되고 판매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블로그·서평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독자의 의견 표출 및 수렴이 점점 용이해지면서 독자 선호도를 고려한 번역 작품 선정 및 번역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주(2004: 17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번역 문학사에 영향을 끼친 시스템으로 첫째, 정치적 이념, 둘째, 노벨상 수상, 셋째,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넷째, 독자의 선호도, 이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 여기서 ‘노벨상-출판사의 마케팅 전략-독자의 선호도’는 경제적 폴리시스템이라는 큰 틀에 포함될 수 있는 하부요소들이다.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문학상을 받은 경우 그 작가 및 작품의 위상은 올라가고, 출판사에서는 수상작들을 선정하여 번역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독자들 또한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에 좀 더 주목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 폴리시스템 내에서 이 문학상 수상 번역작품들의 위치가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 ‘문학상-출판사 마케팅-독자 선호도’가 형성하는 경제적 폴리시스템을 구체적 작가와 작품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우선, 199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흑인여성 작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작품들의 출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리슨은 “흑인들의 고통받은 삶을 그들의 관점에서 재현하고자 노력한 작가”(강준수 2015: 2)이다.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한국은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30년 간 정치라는 절대성에 왜곡되어 백색문학만이 번역을 통하여 이입된 기형성을 빚었다”(전현주 2004: 170). 즉, 번역된 백색문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던 시기에 흑인문학은 주변적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모리슨은 1970년대 초반부터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 하였지만, 한국에 본격적으로 모리슨의 작품이 번역되어 소개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1993년 노벨상 수상 이후이다. 모리슨의 대표적인 다섯 작품의 발표년도와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이 다섯 작품은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1970)』, 『술라(Sula, 1973)』,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1977)』, 『빌러비드(Beloved, 1987)』, 『재즈(Jazz, 1992)』이다. 『재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3년보다 훨씬 이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한국에서 모리슨의 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대부분 1993년 이후이다.

〈표 3〉 노벨상 이전과 이후 토니 모리슨 작품 한국 출판년도 비교

	가장푸른눈 (1970)	솔라 (1973)	솔로몬의 노래 (1977)	빌러비드 (1987)	재즈 (1992)
한국 출판 년도 (노벨상 이후)		2015		2014	2015
		2010		2006	
		2005	2004		
	2003			2003	2001
				1996	
	1993	1993			
(노벨상 이전)		1983	1980		1992

2.3.4 언어적 폴리시스템

앞서 소개한 보완된 폴리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언어적 폴리시스템은 목표 문화권의 언어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번역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번역 시 통사적 구조 및 단어 선택이 달라지는 것도 이(異)문화의 언어적 폴리시스템 작용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작용 사례는 기존 연구(이영옥 2001; 이창수 2006; Mah 2015)를 통해 수차례 확인되었다.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폴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무생물인 추상 명사가 주어로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무생물 주어가 행위를 하는 타동형사 구문이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무생물 주어보다는 생물주어 특히 인간이 주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어에서는 무생물 주어의 행위 구문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어색한 한국어 구문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 시 무생물 주어를 부사어로 전환하는 번역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 massive waves / killed 273,800 people.

(TT) 쓰나미로 인하여 / 27만3천8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창수 2006: 166)

위의 예문에서 보면 영어에서는 무생물 주어(massive waves)가 행위(killed)의 주체이지만, 이를 그대로 직역하여 ‘쓰나미가 27만3천9백명을 죽였다’라는 표현은 한국어 규범상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무생물 행위 주어를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어구(쓰나미로 인하여)로 전환한 것을 볼 수 있다. 역으로, 한국어-영어 번역 시 우리말 부사어구를 영어에서는 무생물 주어로 사용하여 영어권 언어적 폴리시스템을 따른 사례를 볼 수 있다.

(ST) 작년 5월 장성 요양원 화재 때는 /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TT) A fire at a nursing home in Jangseong, South Jeolla Province in
May last year / claimed 21 lives.

(Mah 2015: 78)

위의 예문에서는 영어로 번역 시 무생물 주어(a fire)가 행위를 하는 (claimed) 구문으로 바꾸어 영어 규범에 맞추어 번역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즉, 각 문화에서 존재하는 언어적 폴리시스템에 따라 목표문화권에 자연스러운 언어로 전환되어 번역되는 언어적 폴리시스템의 작용을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3.5 문학적 폴리시스템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학계에 주요 문학적 모델로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사소한 것, 소박한 것, 평범한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시적 표현 대상이 되고... 신비적 대상이 소멸되면서 일상적 대중문화, 주변적인 것이 역설적으로 중심이 되어버린다”(한태호 2003: 169). 즉, 소외되고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것들이 좀 더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여성문학이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여성문학은 기존 문단에 없었던 새로운 주제와 또 다른 인식을 생성하고 표출해 옴으로써, 탈근대의 해체적 담론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박선경 2013: 269)이고, 여성문학은 주변 문학에서 중심 문학으로 서서히 위치를 이동해왔다. 그리고 여성문학의 위치 변화가 번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번역 시 여성의 정체성을 더욱 가시화 시키는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컨대 바바라 고다드(Barbara Godard), 수잔 드 로트비

니에르-하우드(Susanne de Lotbiniere-Harwood), 앨리스 파커(Alice Parker), 등은 불어의 무음‘e’, 신조어, 언어유희(word play), 패러디, 그래픽 문자 등을 실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번역 속에 여성의 부재(absence)와 배제(exclusion)를 과감히 드러내고 대중(남성)의 언어에 여성의 정체성을 삽입하려고 하였다”(Simon 1996; 이상빈 2016: 62 재인용). 이처럼 문학적 폴리시스템에서의 여성문학 위치 변화로 인해 구체적인 번역 행위가 달라진 사례를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여성문학작품으로 알려진 시몬 드 보부아르의 작품 『제2의 성(Le Deuxieme sexe)』의 두 한국어 번역본(1955년/2009년 번역본)을 비교한 선행연구(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를 보면, 구체적인 번역 행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 수 있다. 1955년 번역본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노골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즉, 단어의 누락과 삭제라는 전략을 빈번하게 택하고 있는 반면, 2009년 번역에서는 이전 번역에서 은폐되고 삭제된 단어나 문장을 매우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ST) Un professeur de collège américain me disait que ses élèves cessaient d'être vierges bien avant de devenir femmes; leurs partenaires les respectent trop pour effaroucher leur pudeur, ils sont trop jeunes et eux-mêmes trop pudibonds pour éveiller en elles aucun démon.

1955년 역) 어떤 미국의 高敎의 先生은 나에게 그 곳의 學生들은 女子가 되기 훨씬 전에 處女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젊은處女의 상대는 예의를 지키면서 處女들의 羞恥心을 공연히 해치려고 하지 않고 그여자들 속에 魔力을 일깨우기에는 그들은 너무 젊고 그들 자신이 너무 수줍다.

2009년 역) 미국의 어떤 중학교 선생이 내게 말하기를, 그곳 학생들은 여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처녀성을 상실한다고 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 마성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젊은 상대 남성들은, 예의를 지키므로 처녀들의 수치심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또 그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움을 탄다.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149-150; 필자 수정)

7)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2012)의 논문에서는 이 예문을 사례로 제시하며 번역본 출판 연도 대신 번역가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시대적 차이를 명확하게 보

선행 연구에서는 번역 행위가 이와 같이 달라진 주된 이유를 번역가의 젠 더차이에 두고 있지만, 1955년 번역에서 이처럼 생략과 누락이 많은 이유에 대해 “1950년이라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번역자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전략”(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149)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2009년에는 여성문학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여성 관련 노골적 표현에 대한 번역이 좀 더 직접적이고 대담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학적 폴리시스템의 변화가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구체적인 번역 행위 또한 변화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데올로기적 폴리시스템과 어느 정도 중첩되기도 한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또는 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문학의 위치도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이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2.3.6 번역적 폴리시스템

번역 시 원천 텍스트와의 등가(equivalence)를 찾기 위해 다양한 번역 전략을 소개한 연구들이 있다(Catford 1965; Baker 1992; Vinay & Darbelnet 1995). 예를 들어, 관용구(idioms) 번역에 관한 전략에 관해 베이커(Baker 1992)는 a) 의미와 형태가 유사한 관용구를 사용, b) 의미는 유사하지만 형태는 다른 관용구 사용, c) 풀어쓰기(paraphrase), d) 생략(ommission)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the tip of the iceberg’라는 영어 관용구 같은 경우, 이에 대응되는 우리말 관용구인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번역 가능하다. 그러나 ‘Inside Italy the Cold War was not a zero-sum game’이라는 문장에서 ‘a zero-sum game’이라는 관용구의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우리말 표현이 없다. 따라서 번역가는 여러 번역 전략 중 내포된 의미를 풀어쓰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결과 “이탈리아 안에서는 냉전이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 식의 체로섬 게임이 아니었다”(이희재 2009: 243)라고 번역하여 목표 문화권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번역적 폴리시스템에 따라 번역가가 구체적인 번

이거 위해 번역가 이름 대신 번역본 출판연도를 제시하였다.

역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비네이와 달베르네(Vinay & Darbelnet 1995)는 번역 전략을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과 간접 번역(oblique translation)으로 구분하며, 차용(borrowing), 모사(calque), 치환(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변안(adaptation) 등의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번역 전략들이 하나의 번역적 폴리시스템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번역 행위를 변화시킨다.

장(Chang 2011)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번역적 폴리시스템 내의 규범 및 전략들이 교실 내에서 학습될 때, 실제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즉 번역자가 “문화적 진공상태(cultural vacuum)”(Chang 2011: 339)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학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역적 폴리시스템은 다른 폴리시스템의 규범들과 종종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각기 다른 규범들이 번역자를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고, 결국 (번역자는) 평형상태(equilibrium)에 도달하게 된다”(Chang 2011: 340).

그동안 폴리시스템 이론의 작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자기주관적(self-perception)인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상황 및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론 적용 과정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러 시스템들이 작용하여 번역문학의 위치, 작품 선정 및 번역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폴리시스템 이론은 역동적으로 진화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때 따라 시스템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즉,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또 다른 폴리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새로운 논의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된 폴리시스템 이론(Chang 2011)을 한국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적용하여 번역을 위한 작품 선정에서부터 번역 행위가 달라지는 것까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폴리시스템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폴리시스템 이론을 처음 수립한 이븐-조하르 마저도

이 이론의 시스템에 대해 결론을 열어두고 수정될 여지를 남겨두었다⁸⁾. 따라서 3장에서는 여러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제시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언어적, 문학적, 번역적 폴리시스템 외에 또 어떠한 폴리시스템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및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공간적 경계와 국가 간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번역 작품 선정 및 번역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에도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활용으로 특정 가설들의 연관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 놓인 것”(Lambert 1995: 129)이다. 그리고 기술 발전 덕분에 독자들은 과거에 비해 번역물 선정 및 번역 행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가 더욱 용이해졌고, 온라인상에서 독자들의 의견 및 번역 비평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번역 비평과 관련하여)인터넷과 통신이라는 공론의 장은 누구에게나 열린 토론의 공간이며 전파력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예전보다 매우 큰 권한이 부여된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김순미 2012: 32)이고, 일반 독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일반적인 번역 수용자들이) 결국 번역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점,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주체들이기 때문”(강지혜 2013: 29)이다. 따라서 현대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여 번역물 선정 및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폴리시스템으로 ‘독자반응 폴리시스템(responsive polysystem)’을 추가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독자반응 폴리시스템’이 작용하는 과정, 즉 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번역이 달라진 사례를 잘 알려진 일본 소설의 우리말 번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은 1987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애소설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36개국이상으로 번역된 작품이다. 한국에서도 1988년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원제 그대로 번역⁹⁾이 되었으나, 일본에서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이 작품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던 것이다. 책의 판매량이 부진하자 1989년 좀 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출판¹⁰⁾하였고, 그 이후 책의

8) “이븐-조하르 자신도 마무리 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지는 않았다(Even-Zohar himself did not want to offer a finalized system of theories)”(Lambert 1995: 111).

9) 『노르웨이의 숲』(1988) 노병식 역, 삼진기획.

판매량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출판시장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던 이 책은 중심적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심적 위치로 이동하자 더 많은 독자들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독자들은 원작 제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좀 더 원작에 가까운, 즉 원천텍스트 중심적인 번역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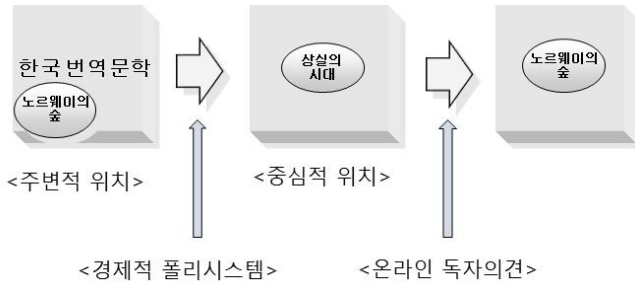
“책을 읽는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4명은 나오는데 그래서 상실의 시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책을 덮으면서 ‘이건 순전히 한국 번역가 자신의 생각을 단정 지은 것일 뿐’이란 겁대가리 없는 결론을 냈다. 전혀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상실의 시대’라니? 그냥 젊은 시대의 혼란을 표현하는 ‘노르웨이의 숲’이 더 적절하다. 고로 나는 노르웨이의 숲이라 칭하고 싶다”(http://blog.naver.com/maxcuty/220243270991).

“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을 상실의 시대로 번역했을까? 제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보통 제목을 옆두에 두고 읽기 때문에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읽고나버리면 상실에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된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루키가 제목을 노르웨이의 숲이라 지은 의도는 비틀즈의 노래 느낌을 주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http://forever420.blog.me/220019035260).

이와 같이 원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번역 시 다시 원제인 『노르웨이의 숲』을 사용한 책이 재출판 되기 시작하였다. 즉, 책의 판매량이라는 경제적인 폴리시스템의 영향으로 제목 번역이 바뀌고, 이후 매출 증가로 인해 작품이 주변적 위치에서 중심적 위치로 이동하자, 좀 더 원작에 충실한 번역을 보고 싶다는 독자들의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다시 원제를 그대로 사용한 번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10) 『상실의 시대』(1989) 유유정 역, 문학사상사. 문학사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전에 출판된 『노르웨이의 숲』의 판매 부진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출판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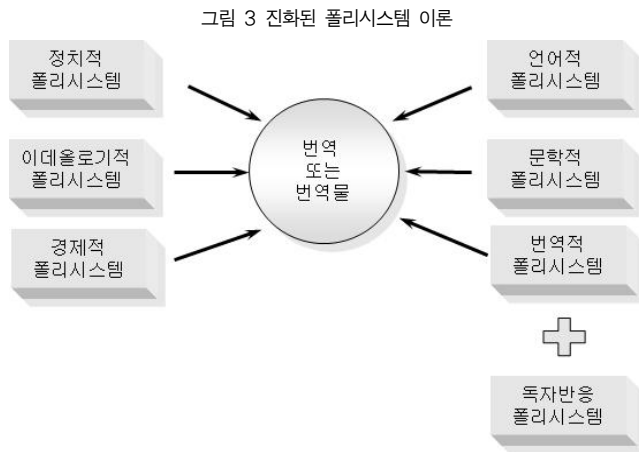
그림 2 독자반응 폴리시스템 적용 사례



이밖에도 청소년 대상 철학책인 『소피의 세계(Sofies verden)』는 청소년 권장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문장,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다는 독자 의견이 대두되자¹¹⁾ 요즘 세대에게 익숙한 문투로 재번역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상의 독자 의견 및 비평이 점차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번역 행위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독자들은 더 이상 출판사나 정책 연구가, 학자들이 주도하는 출판계의 변방에 위치하는 문외한이 아니며 자신들의 의견과 판단을 폭넓게 나누고 전파하는 문학·번역 비평가, 번역가의 역할까지 하고”(김순미 2012: 8)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폴리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킨 장(Chang 2011: 339)의 연구에 ‘독자반응 폴리시스템’을 추가하여 현대의 움직임을 반영하게 되면, 여러 시스템의 영향으로 번역물 선정과 번역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폴리시스템 이론이 또 한 번 역동적으로 진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1) “번역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일반적인 대화부분에서 어색하거나 한국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었다.”(<http://blog.naver.com/umakim2/70067965501>)



4. 결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폴리시스템 이론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가설들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고 주관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예를 들어, 번역을 할 때 번역가는 원작과 번역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해보고, 중심적 위치에 있는 작품의 관습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작이 속한 원천문화권과 번역문이 속하게 되는 목표문화권 중 어떤 것이 중심적 또는 주변적 위치에 있는지, 좀 더 취약한(weak) 위치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이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비판에 응답하며 선행 연구에서 좀 더 보완된 폴리시스템 이론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보완된 폴리시스템 이론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며 각 시스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독자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반응하고, 독자 반응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기존 시스템들 외에 ‘독자 반응 폴리시스템’ 추가를 제안해보았다. 새롭게 제안한 시스템의 작용 사

레 및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등 심층적인 논의는 후속연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폴리시스템 이론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분석하고, 다른 학문 영역과의 융합 연구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론이다. 이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조금씩 이론을 보완·적용해가면 좀 더 폭넓은 연구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3) 「번역 수용자들은 ‘번역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통번역학 연구』, 17(4): 1-34.
- 김순미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 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 박선경 (2013) 「페미니즘 이론과 문학에서의 ‘여성성’ 변이와 증식 과정-정이현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 121: 269-301.
- 박선영 (2004) 「여성의 몸, 우리가 말한다!-19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여성문화운동」, 『여성과 사회』, 15: 210-231.
- 양시내 (2006) 『번역의 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다시쓰기: 버지니아 울프의 *A Room of One's Own*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e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 연구』, 13(5): 143-173.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의 영한 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 이상빈 (2016) 「자막번역에 의한 여성 재현의 변이: 영화 <섹스 앤 더 시티>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2):59-80.
- 이창수 (2006) 「영한번역에서의 동사성 체계 변화 연구 - 무생물 주체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155-175.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전현주 (2004) 「다중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번역학연구』, 5(1): 167-182.

- 한태호 (2003) 「한국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와 세계』, 1: 163-183.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1993) *Comparative Literature.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 Cambridge: Blackwell.
- Bassnett, Susan (1998) 'The translation turn in cultural studies', in Susan Bassnett and André Lefevere (eds)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23-140.
-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atford, John Cunnison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g, Nam Fung (2001) 'Polysystem Theory: Its Prospect As a Framework for Translation Research', *Target* 13(2): 317-332.
- _____ (2011) 'In Defence of Polysystem Theory', *Target* 23(2): 311-347.
- Even-Zohar, Itamar (1990a)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45-51.
- Even-Zohar, Itamar (1990b) 'Interference in Dependent Literary Polysystems', *Poetics Today* 11(1): 85-95.
- Folwer, Edward (1992) 'Rendering Words, Traversing Cultures: On the Art and Politics of Translating Modern Japanese Fictio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8(1): 1-44.
- Gentzler, Edwin (2001)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Hermans, Theo (1996) 'Norms and the Determination of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in Roman Álvarez and M. Carmen-Á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5-51.
- Hermans, Theo (1999) *Translation in Systems: Descriptive and System-oriented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Lambert, José (1995) 'Translation, systems and research: the contribution of polysystem studies to translation studies',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8(1): 105-152.
- Mah, Seunghye (2015) 'Qualitative Analysis of 'Inanimate Subject+Active Verb' Structure in Editorials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in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13(2): 67-94.
- Simon, Sherry (1996)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miss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John Benjamins.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New York: Routledge.
- Vinay, Jean-Paul & Darbelnet, Jean (1995)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Wang, Dongfeng (2008) 'When a Turning Occurs: Counter-evidence to Polysystem Hypothesis', in Wang Ning and Sun Yifeng (eds) *Translation, Globalisation and Localisation: A Chinese Perspectiv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40-154.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maxcuty/220243270991>

<http://forever420.blog.me/220019035260>

<http://blog.naver.com/umakim2/70067965501>

[Abstract]

A Polysystem Revisited in Korea and a Discussion for a System Evolution

Mah, Seung-hy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delved into the process of polysystem theory application in Korea from the selection of literary works for translation to shifts in transla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polysystem theory, many systems in the target culture correlate in the way source texts are selected for translation and translated into target texts. A previous researcher(Chang, Nam Fung) specified the theory and categorized the systems into political, ideological, economical, linguistic, literary, and translational polysystems after being conscious of criticisms about the theory that it is too subjective or unspecified to apply for further research. Based on the suggested augmented version of the polysystem theory, this study contemplated it further, reflecting specific cases and circumstances in Korea. On top of that, this paper suggested to add a responsive polysystem among other things because readers, these days, are more likely to express their opinions about translation than befor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media, and their responses are getting critical in that they have a bigger impact on the actual translation activities.

▶ Key Words: Polysystem theory, reader response.

마승혜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강사

shm213@gmail.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통번역 교육, 담화분석

논문투고일: 2017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6일